‘조선=숭유억불’ 아니었다

역사비평 조선 건국 다시보기 기획 ‘눈길’

‘思·宗·僧·書’ 주제 나눠 분석
숭유억불 인식 1910년대 고착
지나친 일반화… 과잉해석 담론
고려·조선불교 단절 아닌 연속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일반적으로 조선시대를 ‘숭유억불(崇儒抑佛)’,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했던 시기로 인식한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되면서 불교는 숭불에서 억불로 단절되는 역사를 겪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담론이 지나친 일반화이며, 과잉 해석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역사 전문 학술지 〈역사비평〉은 통권 제123호에서 ‘조선 건국 다시보기-불교, 유불교체의 파고를 넘다’를 기획으로 다뤘다.

기획에서는 사상·종단·승도·서적 등 4가지 주제로 각 분야 전문 연구자들이 여말선초의 왕조 교체 시기를 연속성적 측면에서 조명했다.

숭유억불, 식민사관의 산물

사상적 측면에서 접근한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는 ‘숭유억불’ 담론이 정치·사회사적 측면은 어느 정도 부합하지만 사상·신앙적인 면에서는 단절이 아닌 연속성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숭유억불’이라는 조선불교의 수식은 그 태생이 당대가 아닌 후대의 인식이 반영된 일종의 ‘조어’임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숭유억불’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일본의 숭불 전통과 조선의 억불을 비교한 1906년 10월 16일자 〈대한매일신보〉 사설에서다. 이후 1911년 일본인 학자 후루타니 기요시의 〈이조불교사경개〉 서언에서 ‘배불숭유’가 사용되는데 그는 조선시대를 ‘한 편의 불교 쇠망사’라고 단언했다.

또한 다카하시 도오루는 저서 〈이조불교(1929)〉에서 “조선불교는 억압과 쇠퇴로 발전이 정체되고 여성과 서민의 신앙을 제외하면 독자적 특성이 없다”고 기술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숭유억불이나 유불교체, 그로 인한 불교의 침체라는 조선불교에 대한 전형적 인식은 1910년대 이후 고착됐으며, 이는 해방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숭유억불’ 개념은 정치이념, 주류사상, 시대의식에 한정시켜볼 때는 이해가 가지만, 가치관과 심성, 종교와 문화 등을 포괄하는 전통의 장기지속성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앙적 단절없이 연속돼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국가 의례를 제외한 고려의 불교신앙이나 재회의 상당수는 조선에 들어와서도 단절없이 이어졌으며, 왕실에서도 숭불과 후원의 양상이 조선 말까지 계속돼 왔음을 예로 들었다. 조선 태조는 흥천사에서 우란분재를 열고 국행 수륙재를 설행했으며, 〈세종실록〉에는 우란분재를 당시의 세시풍속으로 소개하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여말선초기 정치이념과 시대사조는 분명 유교로 전환됐지만, 종교와 관습의 영역에서 불교가 가진 지속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다”면서 “왕조 교체를 단절과 전환의 기점으로 획정하기보다는 이 시기를 변동과 연속의 두 관점에서 바라보고 보다 긴 호흡으로 역사의 흐름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절 아닌 변화로 봐야

조선 초기 불교 정책을 종단의 측면에서 살핀 박광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교수와 승려의 관점서 분석한 양혜원 서울대 강사도 여말선초 시기의 불교를 단절이 아닌 연속과 변화로 해석했다.

손성필 한국고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5세기 국왕과 왕실의 불교서적 간행을 재조명하며 기존의 연구 관행과 통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단선적 발전이라는 역사 인식이 가지는 맹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손 연구원은 “유불교체, 숭유억불 등은 단선적 역사 발전 인식이라는 서유럽의 역사 모델을 한국사에 대입하면서 지나친 일반화·이분법으로 과장 해석된 담론”이라고 지적하면서 “단선적·결정론적 인식에 따라 역사 현실을 일반화하면 소외되는 분야·주체·사건 등이 발생한다. 조선시대 불교와 15세기 불교서적이 그러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경주 ‘신라의 미소’ 보물 된다

문화재청, 10월 2일 지정 예고
군위 법주사 등 3곳 괘불 함께
동화사 삼존상 등 보물 지정도

‘신라의 미소’로 잘 알려진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사진〉’와 괘불 등 불교문화재가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등 6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했다”고 10월 2일 밝혔다.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는 일제강점기 경주 영묘사지(현재 사적 제15호 흥륜사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수막새이다. 1934년 다나카 도시노부(田中敏信)라는 일본인 의사가 경주의 한 골동상점에서 구입한 뒤 일본으로 반출했으나, 故 박일훈 국립경주박물관장의 끈질긴 노력으로 1972년 10월 국내로 돌아왔다.

와당 제작틀(와범)을 이용해 일률적으로 찍은 일반적인 제작 방식과 달리 손으로 직접 빚은 작품으로, 바탕흙을 채워 가면서 전체적인 형상을 만든 후 도구를 써서 세부 표현을 마무리했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알려진 삼국 시대 얼굴무늬 수막새로 신라인들의 염원과 인간적인 모습을 구현한 듯한 높은 예술적 경지를 보여주는 이 작품은 신라의 우수한 와당 기술이 집약된 대표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지정 예고에는 문화재청이 전국 사찰에 소장된 대형불화인 괘불의 보존관리를 위해 정밀조사 사업을 하면서 문화재적 가치가 새롭게 발굴된 괘불도 3건도 포함됐다.

‘군위 법주사 괘불도’는 1714년(숙종 40년) 5월 수화승 두초 등 9명의 화승이 참여해 완성한 괘불로 총 16폭의 비단을 이었고 높이는 10m에 달한다.

부처임에도 화려한 보관과 장신구를 착용한 보살의 모습으로 구현한 점, 하단에 용왕(龍王)과 용녀(龍女)를 협시보살처럼 배치한 점 등 다른 불화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화면 구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는 1750년(영조 26년) 축명·사혜 등 4명의 화승이 조성한 것으로, 18세기 중엽 충청도 지역의 괘불 제작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조선 후기 불화 연구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는 1788년(정조 12년) 조선 후기 대표 불화승인 상겸(尙謙)의 주도로 총 22명의 화승이 조성에 참여했다. 이 괘불도는 높이 10m가 넘는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본존인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주위에 권속을 짜임새 있게 배치해 18세기 후반 경북 지역의 대표적인 불화 중 하나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도 함께 지정된 ‘경선사명 청동북’은 불교 의례에서 사용된 의식구로 명문이 표기된 청동북은 찾아보기 어려워 고려 금속공예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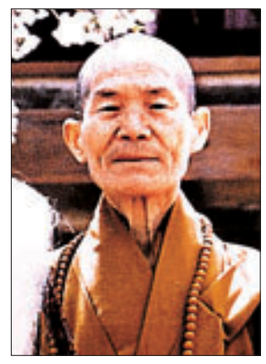
문화재청은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군위 법주사 괘불도’ 등 6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과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을 보물로 지정했다. 또한 김홍도의 역작 ‘삼공불환도’는 보물 제2000호 지정의 영예를 안았다.

신성민 기자

현대 선지식 고암 대종사 정신 기린다

고암문도회, 대종사 열반 30주기 기념 학술대회



현대 한국불교 선지식인 고암상언(古庵祥彦, 1899~1988·사진) 대종사 열반 30주년을 맞아 대종사의 사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고암문도회는 오는 10월 12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계간 〈불교평론〉 주관으로 고암상언 대종사 열반 30주년 추모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의 역사적 전통과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불교 전반에 대한 문제와 고암 대종사의 사상을 살펴보는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 논문으로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종정제도의 기원과 전개’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한국불교의 계맥과 계단 개설’ △이종수 순천대 교수의 ‘한국불교의 선교율 동수론(同修論) 고찰’ △서재영 불광연구원 연구원의 ‘한국불교의 해외포교 역사와 전망’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교수 마성 스님의 ‘한국불교에서 용성문도의 위상’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의 ‘고암상언의 생애와 사상 탐구’ 등이 발표된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고암문도회는 “고암상언 대종사는 용성 조사의 법맥을 이은 대선사이자 종단 계맥을 전수한 율사이면서 종정을 세 차례 역임한 현대 한국불교의 고승”이라면서 “이번 학술대회는 대종사께서 한국불교에 끼친 각 방면의 영향과 공덕을 살펴보고 그 계승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암 문도회는 오는 10월 23일 오전 10시 해인사 용탑선원에서 고암대종사 추모 다례재를 봉행한다.

신성민 기자

봉암 변월주 스님 사상 재조명

봉암문도회 10월 19일 학술세미나

백용성 스님의 전법제자인 봉암 변월주 스님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마련된다.

봉암문도회는 오는 10월 19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봉암 변월주 사상의 재인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주관은 대각사상연구원이 맡았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마성 스님(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한상길(동국대 불교학술원)·이덕진(대행선연구원)·김응철(중앙승가대) 등이 발표자로 나서며, △선사상 △대승불교 △포교사상 △불교정화 등의 분야에서 봉암 변월주 스님의 활동과 사상을 조명한다.

신성민 기자

금산사 보살계사상 위상 살핀다

한국불교학회, 10월 19일 추계학술대회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의 보살계사상과 위상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금산사(주지 성우)와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10월 19일 금산사 처영기념관에서 ‘금산사, 보살계사상의 전승과 실천’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금산사 출산 고승과 역사적 위상, 사상 등을 조명하는 논문들이 발표된다.

주요 논문으로는 △김방룡 충남대 교수의 ‘금산사를 빛낸 중흥조 고승들의 업적과 시대별 특징’ △박광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고려 전기 불교교단에서 금산사의 위상’ △이수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금산사 방등계단과 진표율사’ △윤범모 동국대 석좌교수의 ‘금산사 미륵전 불상과 김복진’ △이병욱 고려대 교수의 ‘보살사상의 사회참여적 측면과 월주 스님의 사회참여활동’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